

지역 소식 통

고창군, 대규모사업
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고창군이 지난 8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2025년 상반기 대규모사업 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 주재로 주요사업의 집행계획과 방향을 공유하고 집행 부진사업의 문제점과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군은 올해 대규모사업 관련 예산 3209억원 중 60%를 상반기 집행 목표로 설정하고 6월까지 1925억원을 집행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각종 대규모 사업의 신속하고 강력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집중안전점검
실시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부안군은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이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총 37개 분야의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시설과 선정 기준 외 추가 점검이 필요한 곳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들의 점검 신청을 받는다.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해 신청된 시설은 행정안전부와 내부 검토 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점검을 원하는 주민은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안전신문고(<https://www.safetyreport.go.kr/>)의 안전신고 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주관하는 부서는 부안군 안전총괄과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063-580-4068)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해상풍력 송전선로, 군민 의견 수렴

부안군의회, 부안군민 토론회 개최... 군민의 목소리 직접 듣고 함께 해결책 모색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이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 문제가 지역사회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업 진행 현황 보고, 주제 발표, 자유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가 ‘재생에너지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의 문제점과 수요 분산 전략’, 전북대학교 전기공학과 고영호 명예교수가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팩트 체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부안군의회,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군민들이 자유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군민들이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어,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토론회가 군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안군민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의회(☎ 063-580-4583)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가 소득 ↑ 어린이 건강 ↑

정읍시, 과일간식 지원 본격 추진... 연간 104회 지원

정읍시가 어린이 건강 증진과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2025년 어린이집·유치원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60회였던 과일 공급 횟수를 올해 104회로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제철 과일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총 3억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유치원·어린이집 80개소, 약 2,300명의 어린이에게 신선한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공립·사립 유치원 34개소(800명), 어린이집 46개소(1,500명)이며 어린이 1인당 120g 내외의 제철 과일이 제공된다.

과일 공급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GAP 인증 과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전북산 일반 과일로 대체된다. 지원 품목은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자두, 딸기, 토마토 등 계절별로 다양한 제철 과일이 제공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간식을 제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어린이와 농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민 안전 위해 해빙기 안전 점검 강화 강조

이학수 정읍시장,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정읍 만들어가자”

이학수 정읍시장이 17일 오전 영상간담회에서 해빙기 안전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해빙기에는 시설물 붕괴나 낙석 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급경사지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인명·재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 곳곳



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

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해달라”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정읍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시는 해빙기에 취약한 급경사지, 축대, 옹벽, 도로 사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점검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정읍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맞춤 지원

정읍시가 한우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송아지부터 성축(어른 소)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올해 16억7,400만원을 투입해 8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고품질 한우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 △한우 품질개선 지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 △한우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 △암소 유전형질 개량 △한우 친자확인검사 지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등 총 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송아지의 면역력을 높이고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 ‘송아지 폐사 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사업’에 3600만원

을 배정했으며, 미네랄 블록과 사료첨가제 등 보조제를 지원하는 ‘한우 품질개선 지원사업’에는 4억원을 투입한다. 초유면역제 지원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순정축협·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전북한우협동조합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유전자 분석을 활용해 우량한 우를 집중 육성하고 저능력 개체는 조기 도태를 유도하는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과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사업’에는 8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농가 소득 향상에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순정축협, 전국한우협회, 전북한우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위한 국회 방문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안규백 의원·이성운 의원 등 만나 협조 요청

심덕섭 고창군수가 17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 안규백 의원, 이성운 의원을 만나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심 군수는 이 자리에서 서해안철도의 필요성을 강조,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3월 중 개최 예정인 국회 정책포럼에 참석해 서해안철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전문가들과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은 고창군을 비롯한 호남 서해안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서해안철도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호남 서해안지역의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지난 12일 한국교통연구원



심덕섭 고창군수가 17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서해안철도망의 국가계획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서해안철도는 고창군 뿐만 아니라 서해안 지역 전체

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국가계획에 성공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건소,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 관리 나서

정읍시가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안전보관함 관리에 나선다.

시 보건소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상교동과 산내면에 설치된 90개 보관함을 집중 점검하며 주민 정신건강 상담과 자살 예방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농약안전보관함은 농약을 체계적으로 보관해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잠금장치를 통해 충동적인 음독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농약 종류별로 구획이 나뉘어 있어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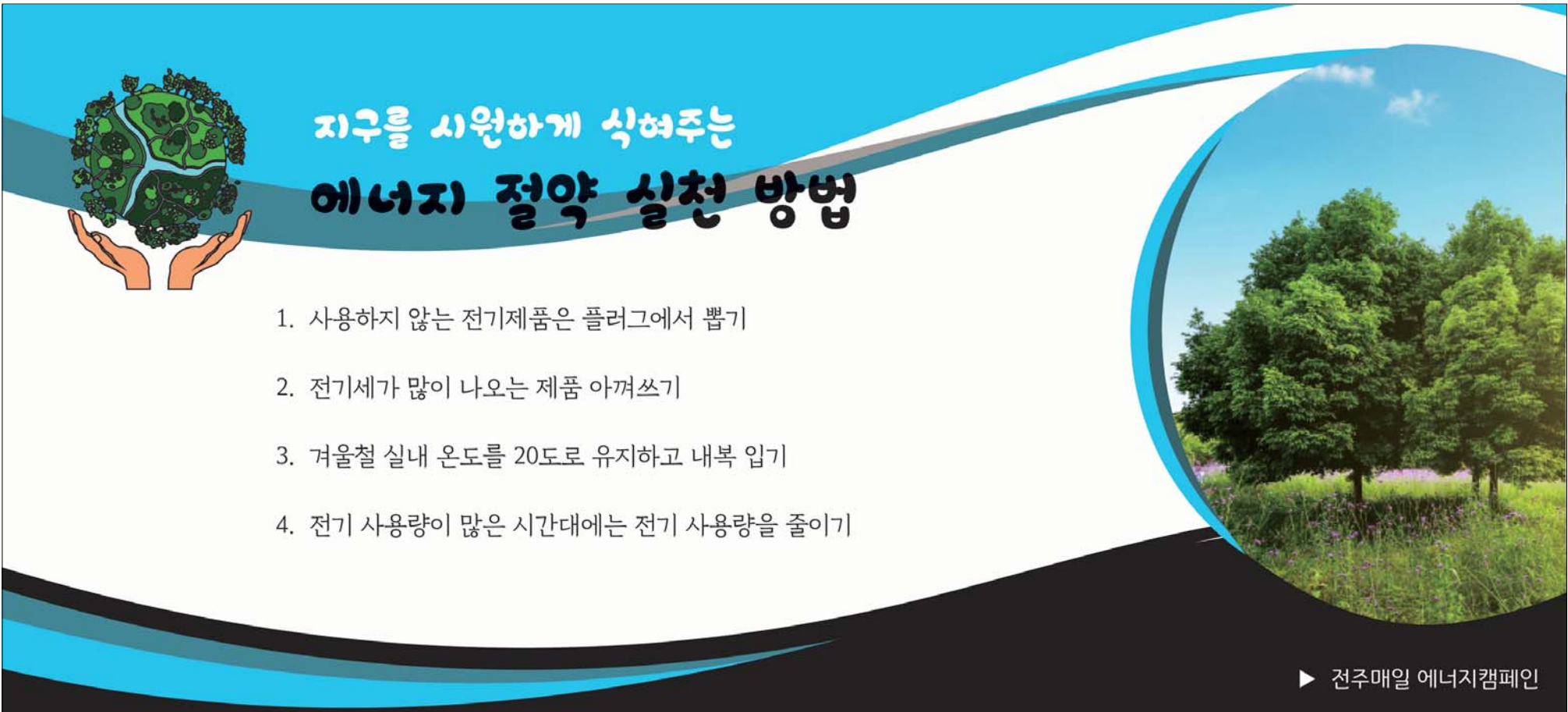
이번 모니터링은 시니어 인력을 활용해 3인 1조로 운영되며 마을을 직접 방문해 보관함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한다. 더불어 자살 예방 홍보물을 배포해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시 보건소는 이번 점검을 기회로써로 끝내지 않고 연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